

# 코스닥 기업 차등배당 '인색'

이은정 mybang21@

코스닥 기업들의 현금배당 결의는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주주경영 차원에서 소액주주들에게 높게 배당하는 차등배당에는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등배당은 소유 주식의 양에 따라 배당률에 차별을 두는 제도다.

주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보다는 일반 개인주주들에게 더 많은 배당을 해 투자 매력도 및 신뢰도를 향상하는 수단으로 이용돼 왔다.

25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부터 올 2월 21일까지 현금배당을 결의한 코스닥 상장사는 282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268곳 보다 5.2%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최대주주와 소액주주간의 차등배당을 결의한 곳은 오알켄, 파라텍, 빅텍, 정보산업, 씨티씨 바이오, 태양기전 등 21곳으로 조사됐다.

작년 회계년도에는 같은 기간 프롬서어티, 유아이다, 한국선재 등 22개사가 차등배당을 실시한 바 있다.

현금배당을 결의한 기업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등배당을 실시한 기업 비중은 작년 8.2%에서 올해 7.44%로 줄어든 셈이다.

코스닥기업들의 차등배당 비중은 2001년 25%에서 2002년 17%, 2003년 16%, 2004년 14%, 2005년 8%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기업별로 보면 지난 2006년 회계년도에 최대주주를 제외한 기타주주에게 보통주 1주당 60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했던 아트라스BX의 경우 2007년 회계년도에는 모든 주주들에게 1주당 80원씩의 현금배당을 실시키로 했다.

SHN도 같은 사례에 해당한다.

이 회사는 2006년 회계년도에 소액주주와 최대주주간 각각 40원, 30원씩 차등배당을 실시했다. 하지만 2007년에는 모든 주주들에게 동일하게 1주당 80원씩 현금배당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진피엔씨도 2006년 회계년도에는 최대주주에게는 무배당했으나 올해는 최대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들을 대상으로 1주당 50원씩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반면 씨티씨바이오는 올해 처음으로 차등배당을 결의해 대조를 보였다. 이 회사는 올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는 1주당 30원을, 일반주주에게는 1주당 50원씩 배

회계년도에는 모든 주주들을 대상으로 1주당 50원씩의

상장사들의 경우 코스피 상장사들보다 개인 투자자가  
그동안 개인주주들을 대상으로 한 차등배당제도를

당을 실시한 기업 중에 일부 기업들이 배당 재원이 풍부  
경향이 높아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최근 적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하는 기업들이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높은 곳들도 더러 있는데 이들  
다.

'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대구.경북 코스닥법인 배당 '너무 짜다'

[연합뉴스 2008-03-28 11:31]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경북지역 12월 결산 법인의 배당액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은 증가한 반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대구사무소에 따르면 지역 12월 결산 상장법인 84개사 가운데 지난 26일 기준으로 주주배당을 하기로 한 회사는 32개사로 지난해 동기대비 11개사가 줄었다.

반면 배당총액의 경우 2007 사업연도 배당액이 6천934억원으로 전년도 5천968억원에 비해 966억원(16.2%)이 증가했다.

상장법인 유형별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2007 사업연도 배당액은 6천698억원으로 전년도 5천636억원에 비해 1천62억원(18.8%)이 늘었다.

이는 지역 내 핵심 기업인 포스코의 1주 배당금이 전년대비 25% 증가한 것이 크게 영향일 미친 것으로 대구사무소는 분석했다.

업체별로는 포항강관, 제일연마공업, 평화홀딩스 등의 전년대비 배당을 상승이 두드러졌다.

지역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배당액은 236억원으로 전년도 332억원에 비해 96억원(29%) 감소했다.

전반적인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탐엔지니어링, 제이브이엠, 대진공업, 태양기전 등의 업체는 배당률이 전년도 보다 높았다.

tjdan@yna.co.kr

(끝)

주소창에 '속보'치고 연합뉴스 속보 바로 확인

[<모바일로 보는 연합뉴스 7070+Nate/magic@/show/ez-i>](#)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